1965년 분리와 독립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분리로 가는 길

인종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평등한 권리가 따르는 "말레이시아인의 말레이시아(Malaysian Malaysia)"를 내건 PAP의 운동은 연합당(Alliance) 정부가 기반으로 삼은 종족 간 타협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965년 5월 27일 연방 의회에서 한 리콴유의 연설은 훗날 툰쿠의 말을 빌리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느슨한 형태의 연합에 관한 협상은 이미 1965년 2월에 결렬된 상태였습니다.[1]

결정적인 조치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7월 15일 고켕스위(Goh Keng Swee)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부총리 툰 압둘 라작(Tun Abdul Razak)을 만나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7월 26일 리콴유는 고켕스위에게 협상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이 협상에 관한 고켕스위의 문서, 이른바 알바트로스 파일(Albatross File)은 2023년 2월 발표 이후 전면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에 비추어 보면 분리는 이제 필요성과 전략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의도적이고 협상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GIC의 창립사 역시 고켕스위가 1965년 동료들 가운데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해 줍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65년 싱가포르 독립협정

분리의 법적 문서는 1965년 8월 7일자 싱가포르 독립협정(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이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말레이시아 측에서 툰쿠와 장관 4명이, 싱가포르 측에서 리콴유와 장관 9명이 서명했습니다.[3] 협정의 조항들은 양측이 무엇을 핵심으로 여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II조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의 날(Singapore Day)"로 불리는 1965년 8월 9일에 말레이시아의 주(州)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가 승인하는 독립 주권국가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V조는 당사국들이 대외 방위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내 기지를 유지할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각 당사국이 상대방의 독립과 방위에 해로운 조약을 외국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4]

경제 조항은 간략했습니다. 제VI조는 두 나라가 상호 이익을 위해 경제 협력을 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VII조는 말레이시아 협정의 부속서 J와 K를 명시적으로 폐지했고, 이로써 1963년의 재정 협정과 공동시장은 이 협정의 체결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제VIII조는 싱가포르에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의 채무에 대해 제공한 보증에서 말레이시아를 해방시키도록 교섭하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 손해를 보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한 조호르주와 체결된 1961년 및 1962년의 물 공급 협정을 보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필요한 물의 대부분을 이 협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5]

1965년 8월 9일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의회는 PAP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 및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개정) 법안(Constitution and Malaysia (Singapore Amendment) Bill)을 찬성 126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가 법무장관 E. W. 바커(E. W. Barker)가 기초한 싱가포르 선언문(Proclamation of Singapore)에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은 오전 10시 싱가포르 라디오에서 낭독되었고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6]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정오에 리콴유는 방송회관(Broadcasting House)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의 앞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미리 준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두 정부가 "방위와 안보뿐 아니라 상공업에서도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견 후반에 그는 서명의 순간을 "고뇌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평생 합병을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7]

국제적 승인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가입 신청을 심의한 뒤 1965년 9월 21일 117번째 회원국으로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1965년 10월 15일에는 22번째 회원국으로 영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협정은 국제연합에 No. I-8206으로 등록되었습니다.[8]

신생 공화국의 법적 구조

1965년 싱가포르 공화국 독립법(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1965년 법률 제9호)은 분리에 국내법상의 형식을 부여했습니다. Section 1은 이 법이 1965년 8월 9일에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분리부터 법 제정까지의 몇 달간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9]

이 법은 몇 개의 문장으로 주권을 이전했습니다. section 3에 따라 양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은 싱가포르의 최고 수장 지위를 상실했고, 그의 주권과 관할권은 국가원수에게 귀속되었습니다. Section 5는 말레이시아 의회의 입법권을 싱가포르 입법부로 이전했습니다. Section 6은 말레이시아 헌법의 규정을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싱가포르에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서, 적용이 중단되는 규정들을 열거했습니다.[10]

상거래에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Section 9는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로 넘어간 모든 재산, 권리 및 채무를 싱가포르 정부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Section 11은 법원의 관할권과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고, 달리 정할 때까지 말레이시아 연방법원과 추밀원(Privy Council)에 대한 상소를 존속시켰습니다. Section 13은 모든 기존 법률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싱가포르의 독립적 지위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해석된다고 규정했습니다.[1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그 결과 주권자는 바뀌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남았고, 회사는 등록을 유지했으며, 은행은 라이선스를 보유했고, 법원은 계속 재판을 열었습니다. 무역항으로서는 이것이 1965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었습니다. 상인과 은행가들은 실제로 누려 본 적이 없는 공동시장을 잃었지만, 익숙한 법질서는 지켰습니다.

흔한 오해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분리는 흔히 단순한 축출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독립협정에는 양국 정부가 모두 서명했습니다. 알바트로스 파일의 문서들은 싱가포르 지도자들이 합병이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뒤, 1965년 7월 15일 고켕스위와 툰 라작의 회동을 시작으로 분리를 협상했음을 보여 줍니다. 결정은 툰쿠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내렸지만, 방위 협정, 물 공급 협정의 보증, 연방 보증에 대한 손해보전 등 그 조건은 싱가포르가 만들어 냈습니다.

주

1.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5월 9일 말레이시아 연대회의(Malaysian Solidarity Convention) 발표; 1965년 5월 27일 의회에서 한 리콴유의 연설, 툰쿠는 이를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이라고 표현함.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국가연합 협상은 1965년 2월에 결렬됨. ↩
2.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고켕스위는 1965년 7월 1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툰 라작을 만남; 리콴유는 1965년 7월 26일 고켕스위에게 협상 재개를 승인함.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3년 2월 28일 알바트로스 파일의 전면 기밀 해제 발표; 분리를 “a deliberate and negotiated decision shaped by necessity and strategic calculation”으로 서술함; 참고문헌으로 Edmund Lim, “Commentary: What the Release of Goh Keng Swee’s Albatross File Means for Singaporeans”, CNA, 2023년 3월 27일, 및 Susan Sim (ed.), *The Albatross File: Inside Separation* (Straits Times Press, 2025) 등. GIC, *Bold Vision*, 제2장,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Second Sepa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고켕스위는 "the first among his colleagues to see in 1965 that Singapore's political separation from Malaysia was inevitable". ↩

3. 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 1965, Wikisource 수록 본문, "Agreement relating to the separation of Singapore from Malaysia as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stat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8월 7일자; 말레이시아 측 서명자(Tunku Abdul Rahman Putra, Tun Abdul Razak, Dato' Dr. Ismail, Tan Siew Sin, Dato' V. T. Sambanthan) 및 싱가포르 측 서명자(리콴유와 고켕스위, E. W. 바커, S. 라자라트남(S. Rajaratnam)을 포함한 장관 9명). ↩

4. 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 1965, 제II조 및 제V조(Wikisourc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Singapore Day") 말레이시아의 주에서 벗어남; 공동방위협의회; 말레이시아는 "the right to continue to maintain the bases and other facilities used by its military forces within Singapore"를 보유함; "detrimental to the independence and defence of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한 조약 금지. ↩

5. 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 1965, 제VI조 및 제VII조(Wikisourc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or their mutual benefit" 경제 협력 및 공동위원회 또는 협의회; 1963년 7월 9일 말레이시아 협정의 부속서 J와 K는 "expressly rescinded a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 1965, 제VIII조(Wikisourc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채권자들과 교섭하여 말레이시아를 보증에서 해방시키고 말레이시아에 전액 손해를 보전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 "Water Agreements"(mf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Water Agreements were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in the Separation Agreement signed in 1965"; 1961년 협정은 2011년 8월 31일 만료됨; 1962년 협정은 "will expire in 2061". ↩

6.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8월 9일 의회는 싱가포르 개정 법안을 "unanimously by a vote of 126–0 withou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PAP representatives present" 통과시킴; 이후 상원(Dewan Negara)도 만장일치로 승인함. Wikipedia, "Proclam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8월 9일 리콴유가 서명; E. W. 바커가 기초; 10시 싱가포르 라디오에서 낭독되고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됨. ↩

7.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녹취록, 1면 및 12면: 방송회관에서의 기자회견 "at 1200 hours on Monday 9th August, 1965"; "work in the closest co-operation, not just in the defence and security, but also in commerce and industry".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녹취록, 21–22면: "it will be a moment of anguish. For me, it is a moment of anguish because all my life … I have believed in Merger and the unity of these two territories"; "(RECORDING WAS STOPPED FOR THE PRIME MINISTER TO REGAIN HIS COMPOSURE)". ↩

8.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9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연합 가입 안건 상정; 싱가포르는 1965년 9월 21일 국제연합의 117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1965년 10월 15일 22번째 회원국으로 영연방에 가입함. Wikipedia, "Independence of Singapore Agreement 1965"(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국제연합에 No. I-8206으로 등록됨. ↩

9. 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Act 9 of 1965), 1985 Revised Edition (Chapter RSI), Section 1: "shall be deemed to have come into operation on the 9th day of August 1965 (hereinafter in this Act referred to as 'Singapore Day')". ↩

10. 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section 3 및 Section 5(1985 Rev. Ed.): 양디페르투안 아공의 주권과 관할권은 "relinquished and shall vest in the Head of State"; 말레이시아 의회의 입법권은 "shall on Singapore Day cease to extend to Singapore and shall be transferred". 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Section 6(1) 및 제3항(1985 Rev. Ed.): 말레이시아 헌법의 규정은 제3항에 열거된 규정을 제외하고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daptations and qualifications and exceptions as may be necessary" 싱가포르에서 계속 효력을 가짐.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1. 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Section 9 및 Section 11(1985 Rev. Ed.): 1963년 9월 16일 또는 그 이후 말레이시아에 귀속된 재산, 권리 및 채무는 “revert to … the Government of Singapore”;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상소는 달리 정할 때까지 “shall continue to lie to the Federal Court of Malaysia and to the Privy Council”. Republic of Singapore Independence Act 1965, Section 13(1)(1985 Rev. Ed.): “all existing laws shall continue in force on and after Singapore Day”, 이는 “such modifications, adaptations, qualifications and exceptions as may be necessary to bring them into conformity with this Act and with the independent status of Singapore”를 가하여 해석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